

## 한국일보

발행인: 오 기 립  
편집인: 윤 여 춘  
인쇄인: 이 진 용

THE KOREA TIMES  
1839 S. KING ST.  
HON., HI 96826

대표전화: 955-2292

THE KOREA TIMES HAWAII  
(ISSN 0884-3139)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FEDERAL HOLIDAYS) BY THE KOREA TIMES HAWAII, 1839 S. KING ST., HONOLULU, HAWAII 96826. SUBSCRIPTION FEE IS \$10.00 PER MONTH. SECOND CLASS POSTAGE PAID AT HONOLULU, HAWAII.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KOREA TIMES HAWAII, 1839 S. KING ST., HONOLULU, HI 96826.

### 각종 필름도매

**KODAK  
FUJI  
KONICA  
POLAROID**

### 각종 필름 취급

※ 주문배달도함

PHOTO MAX FILM SUPPLIES CO.

☎ 834-6571  
MR. 배, MR장

## 인터·마켓 컨벤션센터 건립

# '商人 저지추진' 결성

### 공동부담으로 변호사선임, 반대운동 벌여 와이헤에知事도 만나, 교민단체 협조절실

〈속보〉 와이키키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에 컨벤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은 뒤 마켓내 교포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컨벤션센터 건립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와이헤에 주지사 등 관계요에 상인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켓내 3배여 점포소유자들은 15일밤 마켓내 후드코트에서 모임을 갖고 「와이키키 인터내셔널 마켓 컨벤션센터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 아시아 이민 검진토록

### B형간염법칙, 한국입양아도 조사

와이헤에 B형간염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출신 이민자 및 입양아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보건국은 한국, 중국,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과 서태평양지역 출신 어린이들을 입양하고 있는 하와이주민들도 이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감염여부를 검사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이 지역 출신 성인 이민자들 가운데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B형 간염보균자는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약 3억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 보건자 1백여만명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교포업주의에 중국, 일본, 필리핀계와 미국인 상인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결성된 이날 추진위는 중견상인 에네스트 베넷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박성원씨와 마이클 박씨를 부위원장으로 유원희씨를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에 앞서 교포상인들은 지난 13일밤에도 1차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에 앞서 변호원장들은 주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청문회에도 참석, 의원들과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15일밤의 상인회의를 끝내고 변호원장은 앞으로 될수있는 한 많은 반대서명을 받아 이를 모든 상·하원의원과 시의원 및 기타 유력 기관에 보내는 한편 이들에게 상인들이 모두 반대서한을 보내거나 진화를 함으로써 강력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위원장은 또 인터내셔널마켓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실시, 앙케트에 「마켓을 없애고 컨벤션센터를 짓는 계획에 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

키는 방법도 강구하겠다

## "수천명 생계와 직결"

### 스타블레틴紙 16일 기획기사 통해 상세히 보도

오늘부터 스타블레틴지는 16일자 신문에 「노점상인들 컨벤션센터 건립에 반대」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통해 주로 한국인, 중국인으로 구성된 5백여 입주상인들의 반대 의견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주 13일 하와이 인터마켓, 독스레인, 쿠히오몰등의 입주상인 5백여명이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 반대추진위를 구성, 주지사와 주의회등에 건립반대를 탄원키로 한

고 밝혔다.

한편 이날모임에서 추진위 고문으로 선출된 박정우씨(보라매회장)는 「교포상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관심을 보이는 교민단체들이 아직은 별로 없다」며 특히 반대서명운동이나 앞으로 있을 지모를 시위등에 교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강력한 여론형성을 뒷받침 해주도록 당부했다.

변위원장은 앞으로 컨

벤션센터 건립 반대추진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마켓측 움직임에 대응토록 하는 한편 서명운동등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의 사전저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때도 마켓측이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강행할 경우 집단시위 등 실효성을 볼만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위원장은 마켓내 3배

여 점포소유자들이 이미 컨벤션센터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마켓밖의 일반교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밤의 2차모임에 앞서 변위원장은 이승지씨(통합상공회의소 재무) 및 마켓내 중국계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 이날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중국이민 2배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와이헤에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변위원장과 이승지씨는 이날 아침까지 접수된 2백40여 상인들의 반대서명을 와이헤에지사에게 전달하는 한편 컨벤션센터 건립이 마켓내 상인들은 물론 전체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상인대표들과 만나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와이헤에지사는 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컨벤션센터 건립 반대 진정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연락해줄것을 약속했다고 변위원장이 전했다.

사실등을 보도했다. 「입주상인뿐 아니라 수천명의 고용인들 생계에 직결된 문제이며 와이키키의 가장 큰 고용지역인 인터내셔널마켓을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는 단원서의 내용을 인용한 스타블레틴지는 상당수 입주상인들이 공개적인 반대운동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할 경우 이들의 카트리시계약이 1개월단위로 이루어져 마켓측으로부터 쫓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신문은 인터마켓의 매스터 리스권을 갖고 있는 폴-프라우스데일씨등이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가등이 입주하는 종합건물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社 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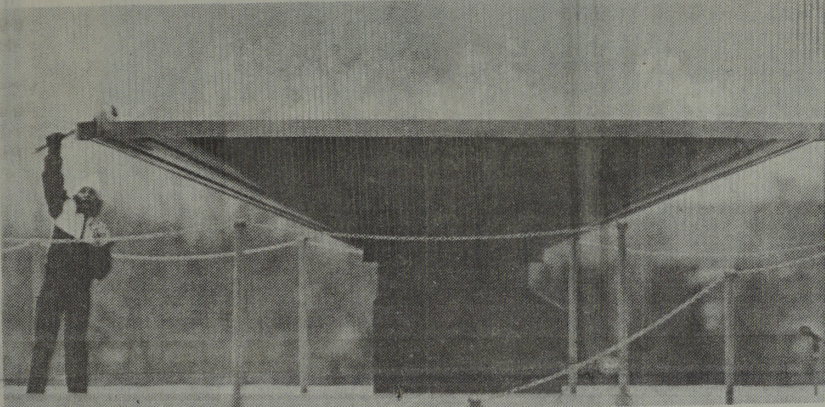
## 「품바」美洲 마지막 공연

### 수십차례의 성공적 순회공연 하와이서 마무리 2월20일-27일 러브러브클럽서

전미주 한인사회에 「품바 선봉」을 일으킨 자설이 풍자극 「품바」가 호놀룰루에서도 공연됩니다. 한국에서 지난 81년 초연된 이래 총 1천4백35회나 공연해 한국연극계 최다공연기록을 갖고 있는 「품바」는 지난해 12월 초 한국인보미주본사 초청으로 50여일 동안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 주요 도시를 순회공연했습니다.

「품바」는 전남 무안군 일로읍 소재 「천사촌」(결혼촌)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각설이대장 「김작은이」의 일대기를 모노드라마로 극화한 것으로 한국고유의 환과 해학, 그리고 전통가락이 뽐낸 배어있는 작품입니다. 「품바」 하나로 일약 유명연극단체가 된 극단 「가가」는 귀국길에 호놀룰루에 들러 미주지역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벌입니다. 공연장소는 「러브러브 나이트클럽」(909 Halekauwili

Plaza)이며 공연일시는 「전영록 쇼」(16-17일)가 끝난 뒤인 20일부터 27일 까지 매일 밤 10시입니다. 입장료는 5달러. 교민사회에서 모처럼 펼쳐지는 연극공연일뿐 아니라 한국연극사상 1백만명이 상이려는 최다관람인원을 기록한 연극 「품바」의 호놀룰루공연에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관 있으시기 바랍니다.



▲캘거리의 로빈-페리양(12)이 13일 맥마스타디움의 성화대에 점화, 제15회 동계올림픽을 공식개막시키고 있다. (캘거리-로이터)

## 박理事長 퇴임표명

### 성인교육회, 3월중 후임선출 논의키로

와이헤에 한인성인교육회(이사장 박영진)는 박이사장이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를 입은 후 줄곧 퇴임의사를 밝히에 따라 3월중 새 이사장 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이사장은 12일 한미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성인교육회 임시사회에서 「보행이 불편할 정도

로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활동하기가 벅하다」며 퇴임의사를 다시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창설때부터 성인교육회를 이끌어온 박이사장의 퇴임을 만류했으나 박이사장은 「현역기가 만료되는 3월까지인 이사장직을 맡고 그후에는 재추대해도 사양하겠다」는 뜻을 굽히

지않았다. 이에 따라 성인교육회는 오는 3월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감사선출과 함께 후임 이사장 선출문제도 논의한 후 박이사장의 재추대 여부를 3월 26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 무명신인이 우승

### 4회 알로하경주대회

15일 열린 제4회 「알로하 경주대회」의 우승컵은

무명의 마라토너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출신의 라스-에릭-닐슨(27)씨는 이날 알로하타워-알로하스타디움의 8.2마일 구간을 40분2초로 주파, 우승을 차지했다. 닐슨씨는 3월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 크로스-컨트리대회에 참가하는 길에 호놀룰루에 들러 알로하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날대회에서 2위는 40분18를 기록한 존-헬렌딩씨가, 3위는 40분22초를 마친 키스-트브-리플본

씨가 각각 차지했다. 여성 마라토너 부문은 케슬린-삼페인씨(26, 뉴욕 거주)가 46분38초로 코스를 완주, 1위를 차지했다. 이날대회에 참가한 2만 3천9백여명의 선수들은 상으로 6시45분 알로하타워 앞 니미츠하이웨이 도로 상에서 와이헤에 주지사의 출발신호로 스타트했다.

구독 및 광고문의 955-2292



「민초들의 아픔」을 숨김없이 토해낸다 「인간성회복」을 외치는 민족의 대 서사시  
恨과 눈물이 어우러진 「품자 무대」

# 品 巴

現 實 批 判  
해 학 가 득  
무 슨 별 로  
다 스 릴 까?  
위 정 자 들 의  
虛 政 罪  
盧 政 罪

金詩羅 작품·연출  
朴同果 출연

일 시 : 2월20일 (토) ~ 2월27일 (토)  
매일 저녁 10시 1회 공연  
장 소 : 러브러브 나이트클럽  
909 HALEKAUWILA ST.  
입장료 : \$ 5.00  
주 최 : 한국일보 하와이지사